

## 2. 最近 北韓 動向과 南北經協 展望

- 오진우의 프랑스병원 입원으로 金正日 體制는 더욱 安定될 것으로 전망됨.
- 政府는 아직 적극적으로 經協擴大 方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.
- 北韓은 南北經協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기 보다는 南韓측의 제의를 거절하지는 않는다는 식의 消極的인 立場을 보일 것임.

### ○ 오진우의 프랑스병원 入院

- 오진우의 프랑스병원 입원은 북한내부 權力構造의 變化를 예상하게 함.
- 이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.

오진우	김정일 지지세력	김정일 반대세력
지병으로 출국	I	II
권력싸움에서의 축출	III	IV

- I. 오진우가 김정일 지지세력으로 軍部를 장악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군부의 지지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돌연 병이 심해져서 프랑스병원에 입원했다는 說임.
  - 이 경우는 약간의 군부 동요가 예상되나 김정일이 早期에 자신의 지지 세력 중에서 인민무력부장을 임명하여 더욱 확고한 군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II. 오진우가 김정일의 반대세력이지만 김정일을 견제하면서 김일성의 후광을 가진 김정일을 전면에 내세워 共生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병이 심해져서 프랑스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임.
  - 이 경우 김정일이 군부를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교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.
- III. 오진우가 김정일 지지세력으로 군부를 장악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군부의 지지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군부의 젊은 세력들에 의해서 축출되었다는 說임.
  - 이 경우는 김정일 체제의 不安이 예상되나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.
- IV. 오진우가 김정일의 반대세력으로 김정일과 勢力 葛藤을 보여왔는데 최근에 김정일파에 의해서 축출되었다는 說임.
  - 이 경우 김정일이 자신의 세력으로 군부를 교체하여 군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됨.

- 위의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Ⅲ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, 김정일 체제는 앞으로 더욱 安定될 것으로 전망됨. (본인의 병으로 권력승계가 불가능해 질 경우를 제외하면)
- 앞으로 김정일이 인민무력부장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임.
- 물망에 오르는 인물로는 혁명 1.5세대인 김광진과 혁명 2세대인 오극렬이 있는데 김정일에게는 오극렬이 더욱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짐.

#### ○ 南韓內 對北關係 慎重論 浮上

- 한국정부의 경협 정책은 점진적인 規制緩和와 단계적인 經協擴大로 갈 전망이다.
- 北美會談 타결 직후 한국 정부는 북한핵 위협이 어느정도 사라졌다며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였음.
- 그러나 북미회담 타결후 2주가 지난 지금까지 남북경협에 대한 공식발표도 하지 못하고 있음.
- 11월 1일 이홍구 장관은 實利에 바탕을 둔 남북경협 원칙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국회에서 발언.
- 이렇게 남북경협 緩和 措置를 선불리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
  - 우리사회 및 정치권에 급격한 경협을 반대하는 強硬派가 존재하고,
  -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調律이 어렵고,
  - 최근 오진우의 중병설로 북한 권력 내부의 변화가 급속히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북한의 변화를 일단 주시해 보려는 慎重論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임.

#### ○ 南北 經協 展望

- 북한은 남한과의 경협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나올 것으로 전망됨.
- 북한은 경협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음.
-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안정으로 미국 및 일본과의 경협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됨.
- 남한에 대해서는 경협을 積極的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남한의 경협 제의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할 것임.
- 따라서 우리 정부는 積極的 자세로 經協擴大 方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.

(이 병 두)